

'귀농·귀촌 1번지 무주'

안성면 솔다박체험 휴양마을, 농촌에서 살아보기 우수사례 발표회서 우수상 수상

무주군은 안성면 솔다박체험 휴양마을(대표 이광노)이 22일 열린 '2023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주최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한 것으로, 1차 서류 평가(127개 마을 대상)를 통해 전국에서 선발된 일반형 5개 마을과 프로젝트형 5개 마을이 발표로 최종 경합을 벌였다.

일반형(귀농형)에 출사표를 던졌던 무주군 솔다박체험 휴양마을의 주제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재배 품목 장기 실습형' 과정으로, 체험 참가자들이 6개월간 마을에 머물며 무주군 대표 특산물인 '사과'를 재배했던 전 과정을 발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단순히 체험에서 끝나지 않고 재배한 사과를 '제2회 무주반달별축제'를 통해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한 점 등도 호평을 받았다.

무주군 대표 농촌체험휴양마을이기도 한 솔다박마을(세미나실과 방앗자센터, 북촌 객실 등)에서는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마을 주민 대상 재능기부 활동과 마을 꽃길 가꾸기, 지역 주민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정보 및 빈집 정보, 농지 정보 등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무주군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김광영 과장은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농촌 생활



무주 안성면 솔다박체험 휴양마을이 22일 열린 '2023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을 직접 경험하며 정보를 체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한 것으로 올해도 6가구 모집에 17가구가 몰리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며 "도시민들이 체험을 통해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얻고 농촌살이에 필요한 노하우를 체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실에 맞는 귀농귀촌 지원 정책 발굴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서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외에도 도시민이 미리 지역에 살아보며 주거지 탐색과 영농 실습에 참여하는 '체재형 가족 실습 농장'과 '귀농

인의 집', '귀농귀촌 게스트 하우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인 집들이 비용 지원과 △건축 설계비, △농지 취득세, △지역 정착 이사비 등을 지원하고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대료를 지원한다.

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를 지원한다. 이뿐만 아니라 △귀농인 농지 형상 복구와 △고령 은퇴 도시민 영농 및 생활, △청·장년 영농 지원과 귀향인 U-turn 정착도 지원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특색있는 답례품 선정 나서

장수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장수군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모집한다.

모집대상 업체는 장수군에 사업장 주소를 둔 사업체로 지역 내 다양한 공급업체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품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 3개 품목까지 신청받는다.

군은 이번 공모를 통해 기존의 농·축산물, 가공식품, 지역 체험·체류형 상품 등 기부자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특색있는 상품을 답례품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장수군청 행정지원과 대외협력팀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급업체로 선정되면 공급계약과 고향사랑기부금 시스템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전화(063-350-2140, 200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는 제도다.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쓰인다.

/장수=고관호 기자

용담댐 수물민 애향심·자긍심 고취 나서

진안군 이미옥 의원 대표발의 수물민 만남의 날 운영 위한 조례 제정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 이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용담댐 수물민 만남의 날 지원 조례'를 지난 22일 제28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날 수물민들의 만남의 날을 운영하여 수물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진안군 용담댐 수물민 만남의 날 지원 조례'의 세부사항으로 △만남의 날 운영 목적 및

정의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 등에 대하여 규정했다.

본 조례의 진안군 용담댐은 2001년에 전라도와 충청도 일부 지역 주민들의 식수와 농수 및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상습 침수지역인 종류, 하루 지역의 홍수를 대피하고자 진안군 용담면과 안천면 일원에 만들어진 댐으로 총 6개 읍면 68개 마을이 수몰되어 2,864세대 1만2,616명이 거주했다.

평소 용담댐 수물민들의 지원에 관심이 많았던 이미옥 의원은 "수물민들에게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실황의 아픔을 달래고 지역 주민들과의 화합 및 교류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자녀 2명 이상 양육가정 지원 확대 근거 마련

진안군 이명진 의원 대표발의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는 22일 이명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명진 의원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양육환경 마련을 위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다자녀의 정의를 기존 '3명 이상의 자녀'에

서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양육하는 가정'으로 개정하여 더 많은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진안군 장남감 도서관 연회비와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시설이용료가 2자녀 이상 가정까지 감면 확대될 예정이다.

진안군 출생아수가 2020년 138명, 2021년 120명, 2022년 85명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 속에서 이명진 의원은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을 더욱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활용방안 모색

임업인 간담회 갖고 생산 농가 건의사항 등 청취

무주군은 22일 적상면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임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의 비전을 공유하고 임산물 생산·유통·판매의 현실을 되짚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무주농업협동조합과 임산물 생산단체(호두, 표고, 고로쇠 등) 대표와 임산물 가공업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무주군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활용방안을 비롯해 △임산물 로컬판매장 운영 및 활성화

방안을 공유했으며 △임산물 생산 농가들의 건의 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오늘 이 자리는 임업 분야 활성화, 임업인들의 소득증대와 판로 확대를 위한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의 보폭을 더 키우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의견을 모으고자 행정과 운영자, 그리고 생산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댄 이 시간을 통해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의 현실성 있는 운영 방안과 무주군 산림정책, 그리고 임업정책이 수립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1636.18㎡ 규모의 무주군 임산

물 산지유통센터는 저온저장고(냉장 14동, 냉동 2동), 임산물판매장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지난해 1월 준공했으며 무주군과 민간 위탁 계약을 체결한 무주농업협동조합(친환경경용농사업단)이 올해 1월부터 임산물 판매와 공공급식, 임산물 구매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천마, 산머루 및 복분자 등 3가지 작목(약 32억 원)을 수매했다.

임업인들은 "임산물 산지유통센터가 무주군 임업 발전은 물론, 임가소득 증대에 확실한 버팀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히며 "지난 1년의 운영 경험에 임업인들의 아이디어가 더해져서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방안이 재정립되고 무주군 임업 또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11월 '도내 1위'

진안군 문화누리카드 이용률이 올해 11월 기준으로 도내 14개 시 군 중에서 1위를 기록하며 순항하고 있다.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연 11만원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문화누리카드 대상자들이 다채로운 축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지난해 동월 대비 9% 높은 이용률을 끌어냈다. 특히 진안고원 운장산고로쇠축제(3월), 동향수박축제(7월), 홍삼축제(9월), 김치보쌈축제(11월)에서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8일~19일 열린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에서도 카드 이용자들이 편의를 높여 통신판매 운영으로 '진안고원골(진안군 직영 온라인쇼핑몰)'과 연계해 문화누리카드 사업 대상자 1,600여 명이 이용하는 성과를 거둬 진안고원골 사용 홍보와 정품문화관광재단의 '문화의 길' 사업 홍보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제2차 '슬기로운 진안생활' 진행

진안군은 22일 산악초 전서관 강당에서 귀농·귀촌 신규전입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슬기로운 진안생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관내 신규 전입자들이 정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장기적인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성공적인 귀농귀촌 정착에 대한 귀농귀촌 행정지원현황, 건축 인·허가 절차와 방법 등이다.

특히 군청 실무자들이 강사로 직접 나서 군 정책안내와 정책 정보 활용 방법 등은 물론 선·후 주민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완화 방법 등 실질적으로 귀농 귀촌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내용 등에 대해서 강의가 진행돼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